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21期(2026.11.08) WWW.MINGHUI.ORG 한글판 1085호 minghui.or.kr



▲ 2026년 10월 18일, 제7회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가 슈프하임에서 열렸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수련생들은 사부님께서 교류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하며, 수련 체험을 나누고 함께 정진하였습니다. 사진은 참석한 일부 수련생들의 기념사진입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34만 0790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특수한 업무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대법을 실증하다
【중국법회】 남을 위한 생명이 되다
【중국법회】 기술 업무를 하며 심성을 높이고 서약을 실천하다
【해외법회】 파룬따파 안에서 새 삶을 얻다

〈목차〉

제23회 중국법회

특수한 업무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대법을 실증하다 …… 3

남을 위한 생명이 되다 …… 12

기술 업무를 하며 심성을 높이고 서약을 실천하다 …… 26

사존께서 나를 이끌어 신성한 귀로에 오르게 하시다 …… 38

수련의 조각들 …… 51

다섯 번 넘어진 80대 할머니, 시련과 갈등 속에서 수련을 견지하다 … 59

해외법회

파룬따파 안에서 새 삶을 얻다 …… 67

중국어판 '전법륜'을 읽은 경험 …… 7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자에게는 부동한 층차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전법륜)

이로 인해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심성을 제고하기만 하면 줄곧 새로운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중국어판 '전법륜'을 읽는 것은 이 방면의 개인 수련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차근차근 한자를 배우는 초기 단계여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에 전심전력으로 법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판 '전법륜'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로 순식간에 이미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늘 각종 장애에 부딪혔고 어떤 한자는 아무리 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부님께서 줄곧 묵묵히 저를 이끌어 주시고 꾸준히 해나가도록 격려해 주심을 진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안배해주신 길을 똑똑히 보았는데, 바로 '중국어판 '전법륜'을 읽을 수 있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20여 년 전 법을 얻은 곳인 루체른에서 정보의 날 행사에 참가할 때 저도 약간의 중국어를 사용해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 원고)

들이 하는 욕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가 외국인으로서 '정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현지 수련생들은 큰 지지를 보내주며 이것은 순전히 신앙을 견지하기 위함일 뿐 절대 정치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어 그곳에서 계속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매주 여러 차례 단체 법공부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소리로 따라 읽는 것조차 수련생들의 읽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점점 더 좋아졌고 때로는 과감히 큰 소리로 따라 읽기도 했습니다. 중국어로 읽을 때는 시종 고도로 집중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어판 '전법륜'을 읽을 때는 때로 정신을 팔아 법리를 100% 터득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일부 사람의 오성은 좀처럼 올라오지 못해,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책에다 제멋대로 줄을 긋고 표기를 한다. 우리 천목이 열린 사람은 모두 보는데, 이 책을 보면 오색영롱하고 금빛 찬란하며,"(전법륜)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책에 '줄을 긋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1강은 길구나 아니면 짧구나', '아, 이것은 사부님께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단락은 아주 길구나 아니면 짧구나' 등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마치 제가 매 강의나 단락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과 같아서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동일한 법이라도 부동(不同)한 층차에서는 모두 부동한 변화와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으며,

중국법회

특수한 업무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대법을 실증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와 저는 모두 1999년에 법(法)을 얻은 오래된 수련생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갓 30대 초반이셨고, 저 역시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이 27년의 정법시기 수련 여정을 걸어왔으며, 가족이자 동료이고, 나아가 동수(同修)이기도 합니다. 오늘 명혜망이라는 이 소중한 플랫폼을 빌려 사부님과 수련생 여러분께 우리의 수련 심득을 보고하고 교류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사업을 하시는데 고객층이 비교적 특수합니다. 바로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 사법부 직원들입니다. 저는 졸업 후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아주 작아 직원이 몇 명에 불과하지만 모두 수련인입니다. 우리는 평소 생활과 업무 속에서 엄격하게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고, 고객을 위해 배려하며, 탐내거나 속이지 않고 땀 흘려 정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아 고객사들의 인정을 받았고, 대부분의 고객이 기꺼이 새로운 고객사를 소개해 줬으며, 심지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후임 동료를 소개해 우리와 알게 해줬습니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지난 몇 년간의 일화 몇 가지를 골라 적어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고 사부님께 보고 올립니다.

경찰에게 진상 자료를 보내고 스티커를 붙인 경험

어머니는 업무 중에 경찰 A를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지역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노동수용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본인 역시 악행으로 명혜망에 폭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적합한 진상 자료를 한 부 정리해 A가 사는 아파트로 가져가 입구 경비원에게 주며 A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A가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가담했다는 소식은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2000년 초, 어머니가 성(省) 감옥 관리국에 영수증을 갖다주러 가셨을 때, 핸드백 안에 진상 스티커 몇 장을 챙겨 가 그중 한 장을 관리국 엘리베이터 안에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올라가서 일을 마친 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나오자마자 총을 든 특공대 무리가 뛰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오늘 이 파룬궁을 잡으면 때려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가지(加持)와 보호를 청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때 핸드백 안에는 여전히 진상 스티커가 남아 있었고, 1층 로비를 지날 때 당직을 서던 한 여성 감옥경찰이 일어나 어머니의 핸드백을 계속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경은 마치 제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으나, 어머니는 이미 자전거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사부님의 보살핌 아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실에서 진상을 알리며 인연 있는 사람을 구하다

우리 회사에는 다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고객을 접대하는

어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1년 후 학교 측에서는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언어 연수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1년을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중국인 수련생이 대만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현지 수련생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 현지 수련생 한 명이 저를 데리고 중국 본토 사람들에게 박해 진상을 알리는 여러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수련생이 적극적으로 박해를 반대하고 모든 배치가 이렇게 질서 정연한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수련생은 저를 '타이베이 101'에도 데려갔는데, 그곳은 높이가 500미터가 넘는 마천루로 매일 수많은 중국 본토 사람이 와서 관람했습니다. 현지 수련생들은 매일 그곳에서 공법을 시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박해와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장에는 큰 소리로 '중국공산당(중공)'을 선전하고 듣기 거북한 음악을 틀며 붉은 깃발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련생들이 교란을 겪으면서도 확고부동하게 공법을 시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관광객에게 박해 진상을 폭로하는 모습은 깊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수련생들의 정념정행에 고무되어 저도 '타이베이 101'에 가서 진상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전에는 중국어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은 후 숙제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타이베이 101'로 가서 그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박해를 반대하는 전시판을 펼쳤습니다. 한 서양인이 와서 중공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을 돕는 것을 보고 그곳의 중공 악당 앞잡이들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계속 다가와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중국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자를 터치하기만 하면 화면에 병음 발음과 번역이 표시되고 그 글자의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판 '전법륜'을 플레코에 올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해냈으니 나도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어떤 추구하는 마음 없이 배우기만 하면 사부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적이 일어나 즉시 중국어 '전법륜'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런 생각은 결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추구하는 마음과 과시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판 '전법륜'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레코로 글자의 의미를 찾아보고 발음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진도가 매우 느렸지만 속으로 '속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도 법공부를 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배운 한자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플레코에 카드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기차를 타거나 식사를 할 때 또는 그저 한가할 때 등 틈틈이 배우고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자의 발음과 의미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한자를 위해 카드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언어 학습 앱을 통해 문법의 기본 구조도 배웠는데 이는 듣기와 이해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법을 실증하다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취리히 대학교의 중국

것 외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법공부와 연공을 하고, 가끔 사부님의 법상(法像)을 모셔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기도 해서 에너지가 아주 강합니다. 많은 속인 친구들이 기꺼이 와서 앉아 있고 싶어 하며 아주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며, 이 다실은 우리가 진상을 알리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공검법 사법부 직원, 공급업체, 안전국이나 안전청 직원 등 각양각색의 온갖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우리 곁에 오는 이들은 모두 인연 있는 사람이며, 모두 사부님께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라고 안배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조사에서 파견 나온 30대 초반의 지역 매니저 B가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수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이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어 골칫거리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화제를 서서히 진상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고향 기차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파룬궁 진상)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생이 미리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B는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의 의미를 금방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파룬궁 진상을 말해주자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이후 B는 순조롭게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고 생활이 단번에 순탄해졌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우리 쪽에 자주 놀러 오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업무 중에 안전청 경찰 C를 접촉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미 퇴직한 간부의 소개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C를 처음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공산당이 파룬궁에 너

무 지독하게 구네요"라고 말했습니다. C를 알게 된 지 반년 남짓 되었을 때, 저와 어머니는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성 전체 합동 박해 작전 중에 납치돼 24시간 동안 불법 심문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C는 계속해서 우리와 업무적으로 왕래했습니다. 나중에 명혜망에서 검색해 보니, C가 성 '610' 책임자와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다실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는 빨간색 휴대폰을 들고 왔는데 다실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입구 쪽 선반에 멀찍이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간접적으로 그에게 진상을 알렸고, 불가(佛家)에서는 살생하지 않으며 자살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자기 할 말을 하더니,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할 말을 다 하고는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C를 다시 보지 못했고, 그는 관련 업무를 다른 젊은 경찰 D에게 넘겨 저와 연락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

당시 제가 안전청에 물건을 배달하러 갔을 때, 정문 안에서 한 무리가 강적을 맞이하듯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설 때조차 새로운 담당자 D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불친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대법 실증을 최우선으로 삼고 계속 그들과 거래했습니다. 어떤 물건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차라리 이윤을 남기지 않거나 적게 남기더라도 정성을 다해 납품을 마쳤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적합한 물건을 골라주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점점 우리를 인정하게

갈 때 비록 조금 피곤했지만 내면은 일종의 아주 멋진 느낌으로 충만했고 몸 전체가 매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인 수련생과 함께 '전법륜'을 읽다

홍콩 현지 수련생들은 아파트 하나를 임대해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러 온 수련생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매일 홍콩 수련생 몇 명이 아파트에 와서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어판 '전법륜'을 읽을 때 옆에서 묵묵히 독일어판 '전법륜'을 진도에 맞춰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단락 사이의 멈춤을 이용해 흐름을 파악하며 홍콩 수련생들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중국어 단어들을 점차 알아듣게 되었고 이를 독일어 단어와 대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단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스위스로 돌아온 후 중국어로 '전법륜'을 읽고 싶은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교류 문장들에서 특히 글을 모르는 중국 본토 노년 수련생들이 기적 같은 방식으로 '전법륜'을 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중국어판 '전법륜'을 주문했습니다.

책을 펴고 읽으려 했을 때 의외로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에게 맞는 방식이 아니었고 공을 좀 들여야만 했습니다. 당시 한 독일 수련생과 가까이 살았는데 그는 인근 도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연공하고 법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중국어판 '전법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플레코(Pleco)'라는 애플리케

홍콩에서 진상을 알리다

한 수련생이 정기적으로 홍콩에 가서 현지 수련생들이 진상 알리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함께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서양인 수련자로서 중국 본토 사람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있는 동안 매일 밤 우리는 홍콩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인 '태평산 정상'에서 진상을 알렸는데, 매일 많은 관광객이 있었고 특히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현지 수련생들은 진상을 알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그들은 배터리로 켜는 텔레비전, 현수막, 각종 전시판 등 모든 장비를 택시에 싣고 태평산 정상으로 가서 이 유명한 관광지에 모든 것을 잘 배치해 두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에게 꽤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수련생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진상 자료 배치를 도울 때 이미 첫 번째 관광버스가 속속 도착했고 버스마다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때로는 마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스스로 정념을 유지하도록 일깨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기적으로 법공부와 발정념을 하면서 상황이 점차 호전됐습니다. 전시판을 들고 버스와 관광객 사이를 오갔습니다. 때로는 버스에 앉아 창문으로 보든 차 밖에 서 있든 관광객들이 매우 흥미롭게 전시판을 보는 특정 장소로 안내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번 현지 수련생 한 명과 협력했는데, 그녀는 전시판을 읽고 있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진상을 알린 후 자료를 정리하고 차를 몰고 집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배달하러 가면 그들도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담당자 D 역시 처음의 차가운 겉치레 인사에서 진심 어린 감사로 바뀌었고, 기꺼이 저를 자신의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증은 중공 악당이 조작해 놓아 평소 고속철도를 탈 때마다 승무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비행기를 탈 때도 악의적인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쯤 한번은 어머니가 업무상 속인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베이징과 아주 가까운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검문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에서 내려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차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려서 검사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정념(正念)을 발하며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차에 함께 탄 속인 친구에게 대법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검사를 마치고 차에 타자, 경찰은 그제야 차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때 운전기사가 액셀을 밟아 차를 출발시켰고, 경찰은 차가 떠나는 것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또 한 차례의 박해를 해소시켜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한번은 수련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 모녀를 나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업하기도 힘든데 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우리가 진상을 배포하는 것을 가리킴), 앞으로 누가 감히 거래를 하겠어?"

사악은 우리가 출근하는 곳에 CCTV 두 대를 설치했고(나중에 한 대는 철거됨), 집안 친척들도 연루될까 두려워 감히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심문실에서도 사악은 경찰을 사주해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우리가 파룬궁을 연공하는 것을 가리킴) 앞으로 장사 안 할 생각이냐?”

저와 어머니는 이런 협박 앞에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대법을 수련하니 사부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부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수련의 과정

2년 전, 우리는 뜻밖에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본래 우리 같은 소기업에는 차례가 올 리 없었고, 그들도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며 우리를 얕보았지만, 결국 우연찮게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속인들은 다들 신기해하며 우리가 엄청난 인맥이 있거나 접대에 상당한 공을 들여 이런 프로젝트를 따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접대하러 다니지 않았고, 단지 식사 때가 되면 예의 바르게 식사를 대접하여 사람들이 배를 곯고 가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 외에도 두 명의 중간 연락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접촉한 첫 번째 연락책 E는 어느 고위 간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순조롭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E는 일손을 놔버렸고,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으며 증발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똑똑히 기억나는데, 한번은 E가 또 손을 떼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가 이러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이 프로젝트는 가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초기에 수만 위안을 잇달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니다. 그날 ‘파룬궁 포커스’ 신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후, 중국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박해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 수련의 길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반자는 예전에 다양한 수련법을 접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룬따파가 경지가 아주 높은 기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일반적인 기공을 연마해야만 비로소 파룬따파 연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즉시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었고, 다행히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법과의 그 깊은 인연을 놓쳤을 것입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사부님 저서를 얼마간 읽은 후 더없이 신성함을 느꼈습니다. 대법의 자비로운 빛 속에 흠뻑 젖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길옆에 나란히 난 철로가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달릴 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느라 잠시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주행 중에 낮고 둔탁한 굉음이 들리더니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차가 이미 도로를 벗어나 낮은 담을 넘어서 철로의 자갈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우 침착하게 차를 다시 도로 위로 몰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차도 멀쩡했습니다.

정말로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묘사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의 길에서 일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일들이 나타날 때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에게 진정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전법륜)

법을 얻다

법을 얻기 전 줄곧 수련을 통해 자신을 승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고 한두 가지 기공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오랫동안 꾸준히 하지 못했고 늘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2006년 루체른에서 한 부스를 지나쳤는데, 그곳에서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소개하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속으로 '분명 또 모금하러 온 걸 거야. 나는 이미 한 구호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니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부스를 다시 지날 때 감옥에 있는 모녀의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마음을 울렸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상황을 알려주었고, 파룬따파의 공법과 일상생활에서 '진선인(眞·善·忍)'의 법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 그녀는 '파룬궁 포커스' 신문 한 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룬궁'이라는 이 몇 글자가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강렬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훗날에야 바로 그 순간에 사부님 그리고 대법과 인연이 맺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을 얻은 초기의 시련

지금도 여전히 두 가지 일이 기억나는데, 각각 수련의 결심을 시험하거나 수련을 가로막으려 한 일들입니다.

2006년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반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를 하고 교류했습니다. 저 역시 제 안의 득실을 따지는 마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의식하게 되었고, 이것들은 모두 집착심이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고, 참된 사람이 됨으로써"(전법륜)라고 요구하셨기에, 우리는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며 아무런 보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E의 배후에 있던 사람이 인터넷에서 우리 번호를 찾아 먼저 연락해 온 것으로, 아주 진정성 있게 협력을 원하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기획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임신 7~8개월이었고 매일 밤 10~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오직 법공부만 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이 저에게 지혜를 주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일도 사부님께서 해결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 머릿속에 넣어주셔서 그대로 해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E는 우리에게서 수백만 위안을 속여 빼앗고는 또 실종되었습니다. 이 돈에는 정부의 선급금도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가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돈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써야 했는데,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은 잘 해결되었고, E와의 협력 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락책 H는 우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H를 인정하지 않고 쳐내버리면 1천만 위안이 넘는 이윤을 더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

았습니다. 우리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이고,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거래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된다"(전법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H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고,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남는 돈은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H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연락책 E와 H 모두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E가 자기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길래 우리는 "파룬궁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아주 좋으니, 어머니도 한번 연공해 보시라고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E는 "누님, 무서워서 못해요, 국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E는 나중에 자신에게 우리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우리가 파룬궁을 연공하지만 확실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연락책 H와는 접촉이 많지 않았는데, 당시 제가 갓 출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신앙에 대해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H 본인은 기독교 신자라서 사람에게 자신만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깊이 동의했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자 조금 얼버무리며 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았기에 아마 우리가 대법 수련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위치가 있다 보니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을 수련하는 데는 진정한 복이 따른다

이 프로젝트는 속인 사회의 '사람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구하는 데' 쓰이는 물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

5. 맺음말

수련의 길을 걸어오면서 크고 작은, 넘기 힘든 시련과 고비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법공부를 통해 자신을 바로잡고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도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오직 얼마 남지 않은 수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쉼 없이 정진하여 사람 구하는 사명을 이뤄내야만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심득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중국어판 '전법륜'을 읽은 경험

글/ 유럽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중국어로 '전법륜(轉法輪)'을 읽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험입니다. 제가 공유하는 것이 원문으로 '전법륜'을 읽고 싶어 하는 수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연한 일은 없으며 반드시 B 선생님에게 션윈의 아름다움을 알려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기 전날 B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션윈의 열렬한 팬입니다. 매년 션윈이 대만에 올 때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꼭 공연을 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션윈의 짧은 무용극인 조자룡의 ‘단기구주(單騎救主)’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 부인이 조자룡이 후환 없이 주군을 구하도록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한 것은 옛사람들의 숭고한 절개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션윈이 중화 5천 년 신전문화(神傳文化)에 깃든 충효와 절개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고 갈수록 도덕이 타락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악을 멈추고 선을 북돋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당시 공연이 눈앞을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니 션윈에 대해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션윈을 알리는 다과회에 B 선생님과 A를 함께 초대했고 마침내 B 선생님은 표를 사서 내년 션윈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션윈을 널리 알리는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구함 없이 선한 씨앗을 심기만 하면 인연이 닿았을 때 자연스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사부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부가 어떻게 하고자 하면 결코 간단한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주 많고 많은 기반을 다지는데, 당신들은 보아내지 못하지만, 그런 신들도 모두 같이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다져 놓고, 당신이 가서 하기만을 기다린다.”(대법제자는 반드시 법공부를 해야 한다)

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수련하고 대법을 실증하게 하심이며, 속인들에게도 대법을 수련하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복이 따르며 악당이 선전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고,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연루되어 사악에게 두 번이나 박해를 받으셨고 파출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제 남편은 수련하지 않고 본래 불임증이 있어서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도록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설날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데 왜 너희 사부님께 아이 하나 점지해 달라고 안 하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번은 지역 경찰이 어머니를 구류소로 압송해 가던 중, 경찰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사업도 그렇게 잘나가면서 왜 아직도 이런 걸 하는 거요?” 어머니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한 지 수년인데, 그동안 나쁜 짓한 사람을 수도 없이 봤겠지만 그중에 파룬궁을 연공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히 없었습니다.”

20여 년의 수련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과 아쉬움이 많았고, 두려운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인연 있는 사람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산사령(共產

邪靈)이 사람을 이용해 미행하고 감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악당의 교란과 박해를 돌파해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구하는 이 길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훌륭하게 걸어가며, 원만(圓滿)하여 사부님을 따라 돌아갈 것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준 명혜망에도 감사합니다! 허스(合十)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남을 위한 생명이 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로 올해 75세입니다. 대법을 수련한 지 29년이 됐고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년간 저를 괴롭히던 온몸의 질병이 기적처럼 완치돼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병에 걸리는 원인, 왜 좋은 사람이 돼야 하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등 반평생 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의문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법회를 빌려 제가 수련 중 얻은 약간의 깨달음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단단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세 번 반복해서 소개해야 표를 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시간이 없다며 대꾸조차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해 션윈 공연이 참 좋았다며 션윈 공연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벅찬 감동과 놀라움을 느꼈고 션윈을 널리 알리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으며 진심을 다하면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 11월 타오위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남짓 회계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저는 '진선인'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 동료들을 위해 성심껏 일하며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 적절한 때에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션윈을 널리 알릴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B 선생님에게 션윈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본 적이 없다며 남동생이 파룬궁수련생인데 수년째 수련하면서 자주 여기저기 홍법을 다니고 션윈을 알리는 데도 아주 열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족인 남동생도 그를 설득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외부인인 내 말은 전혀 통하지 않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학교의 회계 대행 업무를 마칠 무렵 마침 개교 70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행사 당일 A 수련생을 마주쳐 무척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니시나요?" 그는 형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의 이름 세 글자 중 두 글자가 같았기에 저는 바로 B 선생님의 이름을 댔고 A가 B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 선생님의 남동생이 바로 제가 잘 아는 A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B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동생을 알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직일 수 있다면 그 위덕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말을 듣고 대법제자가 하나의 정체(整體)이며 정체를 원융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하며 수련생들과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생구도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신경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부가 당신들에게 서로 구조(救助)하게 하고, 서로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구도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말후에 중생들이 서로 구하는 것이다."(험악을 멀리하라)

저는 이런 수련 환경을 몹시 아끼며 심득 교류 원고를 쓰기 위해 끊임없이 안으로 찾고 수련 상태를 돌아보며 법에 대조해 진실하게 수련하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심성이 부쩍 높아졌는데 이는 뜻밖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4. 확고한 정념으로 션윈을 널리 알리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션윈은 사람 구하는 모든 항목 중에서 사람 구하는 힘이 가장 크다."(2018년 워싱턴DC법회 설법)

해마다 션윈(神韻)이 대만에 올 때면 제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귀빈들을 션윈 다과회에 초대하거나 업무 틈틈이 혹은 쇼핑할 때 주변의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션윈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소개하자마자 표를 사고 관람 소감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션윈을 처음 본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션윈 공연을 보는 내내 무척 편안했고 몸의 좋지 않은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날 밤 아주 푹 잤습니다." 그의 나눔을 듣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으며 법에 대한 정념이 한층

집을 구입한 신기함과 사명

이번 생에 이토록 좋은 대법을 얻을 수 있다니 저는 너무나 행운아이며 이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인연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법을 얻은 초기에 우리집에 법공부 팀이 만들어졌고 시내의 연공장도 금세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늘어나 저와 수련생들은 시간을 다그쳐 법공부와 홍법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 보도소에서 리모델링 예정인 낡은 빈 건물에서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틀었는데 실내 울림이 커서 사부님 설법 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마음이 몹시 조급했습니다. 그곳을 떠난 후 주변 건물 정보를 살펴보고 수소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여러 채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일부는 이미 완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일념을 발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집 한 채를 사서 인연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 법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주택 관리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일대 완공된 건물과 미완공 건물 모두 입주자가 진작에 꽉 차서 꼭대기 층 몇 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층만 원했고 1층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주택 단지 안에서 아는 사람을 찾아 만약 이곳에 계속 건물을 짓는다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법에 필요하다면 사부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며칠 후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집을 포기한 사람이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넘겼는데 게다가 바로 1층이었습니다. 제 뜻에 딱 맞았으니 정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당장 가

서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주택 양도 절차를 밟을 때 그 관리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그(경비원)에게 넘어간 거라 누구 손에 들어가든 당신 차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법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그런 소망만 가졌을 뿐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이미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7년 12월 우리는 주택 계약을 맺고 순조롭게 집 구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냈으며 규정에 따라 5천 위안을 돌려받았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넘는 집을 단 12만 위안만 주고 샀습니다. 집 열쇠를 받은 후 저는 열쇠 8개 정도를 복사해 보도소 수련생에게 주면서 언제든 편하게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산 신기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이 집이 바로 대법 수련에 쓰이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했기에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에 아들이 결혼할 때도 예전에 우리가 살던 낡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훗날 중국공산당(중공) 악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가족들은 우리가 이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8년 이후 사부님께서 해외 각지에서 하신 설법 비디오테이프가 연이어 발행됐습니다. 저는 TV를 샀고 수련생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샀는데 당시 집이 흙벽돌 상태라 실내에 문과 창문도 달려 있지 않아 무척 넓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방석 5, 60개를 만들었습니다. 비디오테이프가 한 개뿐이었기에 그 며칠 동안 보도소에서는 시 전체를 구역별, 향진별, 촌별로 나누어 시청하도록 안배했습니다. 하루 세 차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모여서 시청했고 며칠

히 권유하자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람 구하겠다는 생각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 수련생이 곧바로 전화해 찾았으니 이것이 수련의 안배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련생이 매일 출근하면서도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수련생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심성 제고와 법리 인식 교류를 진지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회를 볼 때마다 반드시 원고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 생각을 꼼꼼하게 정리해 전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가 명확하고 조리 있게 들을 수 있어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늘 벼랑 끝에 선 듯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했습니다.

남편(수련생)은 원고를 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충대충 써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요. 그냥 의무만 다하면 되지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거요!” 원고를 잡을 때마다 그는 늘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공부 장소에서 RTC 플랫폼 심성 교류 사회를 보았던 경험을 나누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류할 때 보니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 심득 교류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나요?” 그는 “됐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교류 원고를 쓸 때 남편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길에서 호법신처럼 지켜주는 남편 수련생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한 달 반마다 15분 분량의 심득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 전화를 걸 시간이 줄어들어 무척 조급했습니다. 대만팀 책임자 수련생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자 격려해주었습니다. “당신의 교류가 다른 수련생들의 마음을 움

이러한 근무 환경은 제게 정말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수련인이기에 스스로에게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요구하며 이타적인 마음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으로 찾았고 이기적인 집착심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며 이익과 득실을 담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고 지혜롭게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임 직후 회계실에 들어오는 공문에 일일이 도장을 찍던 기존 절차를 즉시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각 부서에서도 회계실로 공문을 보낼 때 도장 찍는 방식을 폐지했고 각 부서와 회계실 간의 긴장 관계가 풀리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습니다. 대법 수련을 통해 마음의 용량이 더욱 커지고 일 처리가 훨씬 매끄러워졌음에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듬해 6월 타오위안시 정부 주계처에서 수여하는 '우수 주계 직원상'을 받았습니다. 시 전체 200여 개 학교 중 수상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만약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영광은 평생 인연이 없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 RTC 플랫폼에서의 수련을 진지하게 대하다

2023년 10월 어느 날 오전, 학교에서 일하던 중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업무에 꽤 익숙해졌으니 짬을 내어 사람 구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 직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수련생이 전화를 걸어 RTC 플랫폼(대만팀)에서 저녁 진상 전화가 끝난 뒤 심득교류 사회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 플랫폼에서 입을 떼고 진상 전화를 거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 세계의 수많은 수련생 앞에서 심성이나 법리 교류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이 진심으로 간곡

연속으로 보았는데 매번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대다수 수련생이 제때 사부님 설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9년 '4·25'와 '7·20' 무렵 수련생들은 이 집에서 여러 차례 법공부를 하고 교류했으며 법에 대한 인식도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수련생들은 차례로 걸어 나와 대법을 실증했고 수련생들이 이 집에서 만든 많은 현수막을 들고 천안문으로 향해 누명을 쓰신 사부님과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쳤다가 구금된 후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이미 집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여서 저희는 이 집으로 이사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거의 29년이 됐는데 이 집은 줄곧 수련생들에게 법공부 교류 장소를 제공해 왔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집이 다 함께 와서 법을 듣고 법공부를 하던 곳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 수련의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것이기에 저는 줄곧 이 수련 환경을 몹시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남을 위한 마음을 수련해 내다

저와 남편은 모두 대법을 수련하기에 우리집 환경이 비교적 좋아 수련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다른 대법 일을 좀 하는 것 외에도 주위의 여러 수련생에게 자료를 나눠주는 일을 자발적으로 맡았는데 여기에는 몇 년 전의 션윈 DVD, 명혜 진상 탁상달력, 진상 지폐, 진상 호신부(護身符), 진상 스티커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 역시 제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책임 중 하나라고 인식했습니다. 저는 제게 이 책임을 잘 완수

할 것을 엄격히 요구했습니다.

저는 매주 자료를 가져오는 수련생과 만난 후 속인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모두 법에 근거해 교류했습니다. 우리는 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우리집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들이 사는 곳을 묻지 않았고 자료를 만드는 곳을 캐묻지 않았으며 수련생에게 자료 출처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저는 차례로 5~6명의 수련생과 자료를 주고받았고 우리집에 자료를 가지러 온 수련생은 얼마나 되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 수련생은 제게 걱정스레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의 관심과 일깨움에 몹시 감사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안전을 중시할 것을 엄격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에게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법 일을 해선 안 된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집에 볼일이 있어 오는 수련생은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우리집에서도 노인용 휴대폰으로만 전화를 걸고 받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안전은 법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부님 요구에 따라 착실하게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바르게 걷기만 하면 반드시 안전하겠지만 표면적인 안전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전염병 시기에 단지가 봉쇄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데 쓰는 자료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A4 크기의 큰 진상 책자가 몇 가지 늘어났고 단 하루도 진상 자료 배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련생과 자료를 가져갈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고 격리 시설 위로 지혜롭게 넘겨주었으며 수련생들은 또 스스로 방법을

남편의 수양어머니는 100세이신데 최근에 매일 '전법륜'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함께 책을 읽을 때 수양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된단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해." 그러면서 한 장을 다 읽을 때마다 더 깊은 법리를 깨달은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양어머니의 높은 깨달음에 감탄하며 매우 기뻤습니다.

2. 직장에서 진선인을 실천하다

2024년 6월 17일 타오위안의 한 중학교 회계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그 학교는 회계 장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힘들게 모금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고 몇 년 전에 이미 끝난 프로젝트가 선급금 비용으로 장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식이었습니다.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은 교육국에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교육국 회계실장은 서둘러 교장 선생님을 도와 전임 회계실장이 남긴 잘못된 장부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팀 동료 간의 협조도 몹시 어려웠습니다. 각종 프로젝트의 경비 정산이 자주 지연되어 각 부서와 회계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고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늦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임 회계실장은 공문이 들어온 시간을 명시해 자신을 보호하겠다며 회계실로 들어오는 모든 공문에 찍을 도장을 특별히 따로 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각 부서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계실에 공문을 보낼 때 시간을 기록하는 전용 도장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며 분위기는 몹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변해 11cm까지 커졌고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련할 수는 없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수련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일깨워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지지 덕분에 수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련 후 낭종은 사라졌고 간질성 방광염과 좌골신경통도 감쪽같이 없어졌으며 예전에 1년 365일 중 300일은 감기를 앓던 허약한 체질도 완전히 개선되어 병 없이 온몸이 가뿐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련한 지 약 3개월 후 직장의 청소반장님이 저를 보더니 안색이 아주 좋아졌다며 최근에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생활을 바꾼 건 없고 그저 파룬궁을 수련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연공하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십여 년간 수련을 이어오던 어느 날 한 생명보험 회사의 영업소장이 보험 업무 처리를 위해 남편 부탁을 받고 제 사무실로 찾아와 도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 그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었는데 사모님은 어째서 안색이 저렇게 좋아지시고 더 젊어지신 겁니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이죠.”

수련 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딸과 남편, 큰아들도 잇달아 대법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막내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수련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진선인’을 실천하는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해.”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좋은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가져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사람 구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배포할 때 우리는 수련생 수요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자료 조율 수련생에게 알려주어 제공했고 할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자원하는 것이므로 수련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탁상달력은 계절적이라 매년 몇 달 동안만 나눠줍니다. 탁상달력 제작을 맡은 수련생은 명혜편집부 요구에 따라 품질 관리를 엄격히 했습니다. 완성된 탁상달력과 벽걸이 달력은 색상이 선명하고 색이 바래지 않으며 아름답고 세련됐고 표지에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아홉 글자가 붙어 있어 인연 있는 사람이 보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완성된 탁상달력은 얇은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하고 나눠줄 때는 비닐 쇼핑백에 담아 상대방이 가지고 가기 편하게 했습니다. 수련생이 완성한 탁상달력은 여러 차례로 나뉘어 우리집 창고에 놓였고 집 안에도 일부 보관했습니다. 수련생은 필요한 만큼 가져갔는데 8~10권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상자째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년 배포하는 진상 탁상달력 수량이 적지 않았고 사람을 구하는 힘도 몹시 컸습니다.

자료를 배포한 수년 동안 저는 많은 수련생과 만났는데 심성 높낮이가 다르고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하나의 거울처럼 제가 아직 수련해 버리지 못한 집착을 끊임없이 비춰주며 제가 제때 수련의 길을 바로잡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 역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제 사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수련생 사이는 서로 구하는 관계이므로 수련생을 포용하고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수련생은 저를 만날 때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요. 너무 바쁘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수련생은 밤에 자료를 배포하다 붙잡혔다가 풀려나 돌아온 뒤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들은 왜 당신을 붙잡지 않죠? 제가 당신이 자료를 줬다고 그들에게 말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을 늦게 얻은 한 수련생은 성미가 몹시 급했는데 매번 우리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때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뭘 하든 상관없이 첫마디가 항상 “빨리! 빨리! 빨리! 제 것부터 먼저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녀 주변에 수련생이 많아서 오늘은 이걸, 내일은 저걸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조급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수련생들이 다 자기 성격이 급하다고 한다고 하기에 저는 “그럼 우리 좀 고쳐봐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런 식이라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전법륜(轉法輪)’을 법공부할 때 “어떻게 요구하는가? 당신은 안으로 수련해야 하며 밖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락에 이르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모습을 빌려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나 역시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자료를 나누어 주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 저는 안으로 찾았습니다. 아직 수련해 내지 못한 원망심, 사심, 두려움, 자아, 강인함,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마음 등 여러 집착심을 찾아냈고 이를 정념으로 제거하려 노력했지만 일부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급한 마음은 여전히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수련생의 모습은 제게 어서 사람의 관념을 바꾸고 사람 마음의 집착을 수련해 버리라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해외법회

파룬따파 안에서 새 삶을 얻다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1. 인연의 시작

저는 공무원이고 2001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12살 때 중학교에 다니던 해의 일이 기억납니다.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강렬한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끊임없이 책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5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마침 뱃속에 막내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아주 재미있고 꼭 읽어야 할 책이라며 ‘전법륜(轉法輪)’을 부쳐주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논어(論語)’를 다 읽었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고 내면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찾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일과 세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기에 속으로 아이들이 다 자라고 은퇴한 뒤에 제대로 수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예측하기 어려워 41살이 되던 해 건강검진 결과 난소암 수치가 142(정상치는 35 이하)에 달했고 초음파 검사에서 뱃속에 7cm 크기의 자궁내막종(초콜릿 낭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약 치료를 받으며 계속 추적 관찰을 했지만 낭종은 줄어들지 않

데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다"(전법륜)를 해냈고, 인내하고 양보했으며 갈등에 부딪히면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파룬따파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비로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법공부와 수련을 하고 '진선인(眞·善·忍)'의 지도하에 저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람의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사람에서 걸어 나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신(神)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저는 법에서 또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수련의 길과 있는 층차가 다르고 층차마다 서로 다른 층차의 법의 지도가 있으니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것도 정상입니다. 지금 저는 수련생들의 갖가지 모습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고 수련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며 수련생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진상 지폐라는 사람 구하는 항목을 잘해 내다

사부님께서 법에서 진상 지폐라는 사람 구하는 방식을 긍정하신 후 저와 수련생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서 진상 지폐를 사용하는 수련생이 적지 않고 사용 범위도 꽤 넓어 사람을 구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상 지폐 제작 품질의 좋고 나쁨은 사람 구하는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품질 관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펜으로 썼고 나중에는 도장을 파서 돈에 찍었으며 그 뒤에 명혜망에서 진상 지폐 템플릿이 내려왔습니다. 몇 단계를 거치며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는 매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며 진상 지폐 품질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도장으로 진상 지폐를 만들던 시기에 우리는 대량의 도장을 팠는데 내용은 모두 명혜망 요구에 따라 다운로드했습니다.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고 아름다울 것을 요구했고 정성껏 작업하여 대충 넘기지 않아 사람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항목을 전담하는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만든 진상 지폐는 색 번짐과 물 번짐을 막기 위해 왁스칠을 해야 했는데 이 공정은 주로 제 남편(수련생)이 맡았고 그동안 왁스를 몇 자루나 썼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프린터를 바꾸면서 왁스칠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힘이 절약됐고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우리집에 진상 지폐를 교환하러 오는 수련생이 적지 않아 저는 제 돈 수만 위안을 꺼내 진상 지폐로 만들어 수련생들이 교환하게 했습니다. 누가 와서 바꾸든 우리는 거래를 깔끔하게 했고 면전에서 금액을 정확히 셌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겠다는 여러 수련생의 호의도 거절했는데 제 돈은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지만 수련생 돈이 섞이면 아마 순수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회전이 일시적으로 안 될 때면 남편 돈을 잠깐 빌려 썼다가 생기면 바로 갚았습니다. 돈 씀씀이에 있어서 저는 제게 엄격히 요구했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엄숙한 수련이지 속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상 지폐로 바꿀 잔돈은 모두 수련생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었는데, 은행에 가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외출해서 물건을 사며 바꾸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발소 등 다른 곳에 가서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전체가 협력해 잘해 냈습니다. 수련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관통돼 있으며 대법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수련생이 5~6천 위안어치 소액권을 가져왔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돈을 세어 교환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1천 위안 남짓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서 꼼꼼히 세어보니 받아 간 돈이 정말로 그만큼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 세면서 계산이 어긋나 1천여 위안을 더 받아 갔고, 그분이 그 초과분을 돌려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제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료점에 주었습니다.

또 한번은 한 젊은 수련생이 진상 지폐를 바꾸러 왔는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급히 돈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세어둔 돈을 먼저 여기 둘 테니 표에 적힌 금액대로 먼

닥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전혀 방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하게 넘어졌고 온몸이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었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를 보고 주먹을 치켜들며 이웃을 때리려 했으나 저는 즉시 아들을 제지하며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은 계속 욕을 해대며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우리집 식탁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물건이 깨져 있으며, 제가 심하게 넘어져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넘어지신 건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실외기 설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떼어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은 또 경찰과 다투며 많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화를 내며 "여기 살기 싫으면 이사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이웃 주민 중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이웃은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방 안에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웃과 이 일을 따지지 않았고 그녀가 제 아들과 크게 다툰 것도 제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했으니 저는 그녀를 배려해야 했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으니 제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으며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 돈을 들여 사람을 불러 실외기를 철거한 뒤 복도식 아파트 공용 복도 밖으로 옮겼습니다. 실외기를 옮긴 사람도 "할머니처럼 실외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흔치 않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미 실외기를 복도 밖으로 옮겼으니 더 이상 주무시는

히든 자신을 수련하며, 일사일념(一思一念)을 모두 법으로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속인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고 온화한 어조로 아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원만해졌습니다.

지금 정법(正法) 노정이 빠르게 앞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대법제자들에게는 매일 세 가지 일을 잘해내는 동시에 가정 일까지 돌봐야 하니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저는 시간을 다그쳐 모든 작은 일 속에서 자신을 잘 수련하고 일사일념을 대법으로 가늠해 보며, 각종 사람의 마음과 집착을 제거해야만 대법을 더 잘 실증하고 사람을 더 잘 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웃 간의 인내와 관용

제 이웃은 과부인데 60세 정도 됐으며 성격이 매우 괴팍하고 이기적입니다. 몇 년 전 우리집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긴 복도식 아파트라 집집마다 실외기를 공용 복도에 두고 각자의 창틀 아래에 매달아 놓았는데 우리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난 후, 이 이웃은 기계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크게 화를 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제게 왔는데, 이웃이 그 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기어코 실외기를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동의하지 않자 그녀는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로 욕을 퍼부었고 급기야 둘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은 아들의 말문을 막지 못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 식탁을 뒤엎어버리더니 저를 바

저 내주세요. 저는 일이 있어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그녀가 적어놓은 금액대로 세어주었고 그녀는 한번 세어보더니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수련생이 간 뒤 저는 그녀가 적은 표를 슬쩍 보았는데 1위안권 몇 장, 5위안권, 10위안권, 20위안권이 각각 몇 장인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생은 일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실수를 한 적이 없으니 세어볼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돈을 그냥 정리하려 했는데 어떤 힘이 기어코 제게 한번 세어보게 했습니다. 저는 무척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집어 들고 세어보다 깜짝 놀랐는데 무려 500위안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일깨움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대충 넘어가려는 마음, 기대려는 마음, 게으른 마음 등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고 또 사부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찌감치 수련생에게 500위안을 가져다주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표를 보여주니 알고 보니 그녀가 큰돈을 푼돈으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수련생의 딸인 어린 수련생이 진상 지폐를 바꾸러 왔는데 저는 다른 일로 바빠서 남편에게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일하는 게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 평소에는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주 진지하게 한 건 한 건 또렷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그 수련생이 전화를 걸어 500위안이 모자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즉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오면 채워줄게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저는 남편에게 수련생에게 500위안을 덜 주어서 내일 와서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해주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한테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

는 법이 없네요.” 남편은 조금 언짢아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수밖에 없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수(眞修) 제자라면 누구나 고의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우리 문제고 우리가 자신을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수련생이 와서 돈을 가져갔고 우리는 수련에 우연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교류했습니다. 저도 안으로 찾아 아직 수련해 내지 못한 집착심을 일부 찾아내긴 했지만 왠지 이 일의 주요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500위안이 남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또 500위안이 모자랐는데 모두 500위안이었습니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사부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경고하시는 걸까?’ 당시 저는 깨닫지 못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바로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지가 막 내려온 어느 날, 저는 돌연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어서 남편을 얕보는 마음을 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나니 제 마음도 홀가분해졌습니다.

남편과의 수련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남편과 저는 수련생으로 모두 19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어 수련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20여 년 풍파의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배움이 짧아 법리상 크게 깨닫진 못하지만 대법과 사부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둘이 한창 법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더는 공부하기 싫어. 사부님께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만 외우면

래서 저는 기사를 찾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룬궁을 수련하므로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넘어진 것인데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셔서 모두 괜찮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와, 파룬궁은 정말 신기하군요.”

2. 가정에서 일사일념을 수련하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각자 집이 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자주 저를 찾아와 물건을 사다 주지만, 둘째 아들은 저와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둘째 아들이 병으로 수술을 받게 돼, 저는 물건을 챙겨 그 애 집에 가서 보살피며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 제게 보답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네가 나를 보러 오지 않아도 내가 널 보러 갈 것이고, 나는 너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공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보니 둘째 아들이 건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평소엔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코빼기 하나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전화는 왜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원망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공하다가 문득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애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쟁투심과 불공평하게 느끼는 마음이 아닌가? 나는 대법제자이므로 대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해. 나는 선을 닦고 이런 사람 마음을 버려야 하며, 누구에게나 잘 대해줘야 해.’

저는 대법제자이니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무슨 일에 부딪

며, 병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통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가 버스에서 넘어진 것을 알고는 버스 회사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고 따지려 했습니다. 아들들은 누구든 버스에서 넘어지면 다들 찾아가서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단다. 나는 연공인이고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시기 때문에 절대 무사할 거야. 게다가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기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니? 우리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다쳐놓고도 남을 배려하시네요, 누가 어머니를 배려해주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법을 수련하고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시니 절대 무사해.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러자 아들들은 다시는 이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계속 외출해 진상을 알렸습니다. 버스에서 노인들이 탈 때마다 무조건 손잡이를 잘 잡고 잘 앉아서 저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곧장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리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넘어졌던 과정과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넘어졌는데 왜 기사를 부르지 않으셨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무슨 일에 부딪히든 먼저 남을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를 부른다고 해서 그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픈 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만약 기사가 이 일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건 속인이고 당신은 대법제자이니 사명이 있어요. 당신 우는 거 내가 자주 당신한테 잔소리해서 그래요? 나도 다 당신 좋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저 내가 이 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눈도 침침해서 글자가 안 보이고 이렇게 긴 세월 법을 읽으면서 글자를 더하고 빠뜨리기나 하니 온통 남한테 폐만 끼치잖아.”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나이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의 상심한 눈물은 어쩌면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

오후에 법리가 명확한 수련생 두 명이 우리집에 왔는데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와 제 남편의 제고를 돕기 위해 그녀들을 안배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거쳐 저는 이 상황을 수련생에게 이야기했고 수련생은 법리로써 일깨우며 남편의 정념을 북돋아 남편이 아주 빨리 기운을 차리게 했으며 그는 매일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생의 교류는 저 역시 깊이 자신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의 작은 정체이고 마땅히 서로 협력을 잘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수련해 버리지 못한 원망심, 조급한 마음, 트집 잡기 좋아하는 마음, 남편을 얕보는 마음 때문에 줄곧 사람 관념에 덮여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법공부할 때 마음을 써서 하고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아요”, “발정념할 때 손바닥이 넘어지면 안 돼요”, “연공동작을 정확하게 해야죠”, “밖에 나가서 자료 돌릴 때 반드시 안전에 주의해요” 등등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를 위하는 것

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저를 남편 위에 올려놓고 훈계한 것으로 이는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한 가지 표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야 저는 돌연 제게 아주 좋지 않은 강력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즉 자주 수련생과 속인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고 그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뭣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원망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실증하려 한 것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이기적이고 강압적이며 선하지 못한 제 가짜 자아의 모습이 그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못난 모습 역시 그의 진정한 생명의 모습이 아니며, 제가 법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표현 역시 진짜 제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좋지 않은 관념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된 부패된 물질이니 저는 반드시 정념을 많이 발해야 합니다! 정념으로 이 부패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안으로 찾고 저를 착실히 수련하니 남편을 보는 마음가짐도 변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년간 남편이 꽤 잘해 왔고 저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그가 장보기, 밥하기 등 집 안팎의 많은 일을 자발적으로 떠맡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대법을 실증하는 적잖은 일을 했고 무슨 소식을 전하거나 대법 진상 용품을 사거나 심부름하는 일들을 그가 모두 주도적으로 했으니 정말 사부님 법에서 말씀하신 작은스님처럼 묵묵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무척 부끄러워졌고 지난 몇 년간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인간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는 부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신분은 대법제자이며 우리 사이의 진짜 관계는 동문제자

을 보았습니다.' 시장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고, 아무리 아파도 괘념치 않았습니다. 길에서 세 명의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 대법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켜주었으며,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면 신이 평안을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을 조금 사 들고 우리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통증이 너무 심해 정말 누워서 쉬고 싶었으나 구세력을 따르지 않기 위해 눕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져서 더러워진 패딩과 바지를 보자마자 벗어서 세탁기 대신 손으로 직접 빨았습니다. 오른쪽 등이 심하게 다쳐 힘을 쓸 수 없어 왼손으로 일하고 왼손으로 빨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뒤쪽 힘줄이 당겨서 아프고 괴로워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할 때 등이 정말 아팠지만 아무리 아파도 참으며, 고생을 겪고 업을 갚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사부님 법을 기억했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뒤 연공했습니다. 연공 과정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아팠고, 특히 제4장 공법인 파룬주천법(法輪周天法)을 할 때는 그야말로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깎이는 듯이 아팠지만 그래도 견지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고생을 낙으로 삼노라"(홍음-마음고생)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장 공법을 다 연마한 후 가부좌하고 법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개의치 않고 법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넘어진 일에 대해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니 아마도 원망심 때문에 구세력이 틈을 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념을 발해 원망심을 제거하고 사악한 요소가 나를 박해하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눕지 않았으

고 와서 보지도 않았으나 이에 대해 저는 조금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심도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야지 계속 차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있던 한 여성이 내리려다가 저도 내리는 것을 보고는 몸을 돌려 저를 부축해주며 제가 잘 걷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내린 후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합니다. 벌써 네 번이나 넘어졌고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대법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십니다. 먼저 가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파룬궁은 불법(佛法)이고 사람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하늘이 중국공산당(중공)을 멸하려는 것이 바로 지금이니, 당·단·대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탈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평안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해 주세요. '천안문 분신자살'은 모두 가짜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에 가입했었는지 묻고 가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좋다고 연발하며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십니다." 우리는 우호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계속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걸어야 했고 구세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네가 나를 넘어뜨려 집에 가게 하려 해도 나는 집에 가지 않고 걸을 것이다. 나는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러 나온 것이다.' 저는 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큰 업을 소멸해주셨으니 제가 큰 이득

이자 수련생입니다. 사람마다 수련의 길은 다르고 다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며 모두 대법 속에서 수련하고 우리는 서로 구하는 관계로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구분이 없이 생명은 평등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선하게 대해야 하고 이 진귀하고 성스러운 인연을 소중히 여겨 함께 정진하며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해주신 수련의 길을 바르게 잘 걸어 사명을 완수하고 함께 우리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맺음말

법의 요구에 따라 착실히 자신을 수련해야만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고 일만 하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그것 역시 수련이 아닙니다. 구우주 생명의 이기심과 그 이기심에서 파생된 각종 사람 마음의 집착, 후천적으로 형성된 변이된 관념을 수련해 버려야 비로소 사심과 자아가 없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는[無私無我, 先他後我] 신우주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며 남의 장점을 많이 보면 일이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고 수련의 길에서 용맹정진하여 세상에 올 때 맺은 서약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의 이타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배움의 한계와 수련 층차의 한계로 인해 법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기술 업무를 하며 심성을 높이고 서약을 실천하다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무렵, 저는 명혜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외계인의 통제를 받는다고 여겨 컴퓨터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이 보내준 명혜망 교류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글에서 수련생이 '대법이 필요로 한다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대법의 지고무상한 존엄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보고 무척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저도 이런 경지의 생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수련생들은 제가 진상 자료를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 진상 카드를 인쇄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카드가 아주 예뻐서 세상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자료점이 아주 적어서, 자전거를 타고 100여 리 길을 왕복하며 진상 자료를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더워 특히 한낮에는 땀을 많이 흘렸고, 길에서는 물을 마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 허벅지 안쪽 주변에 작은 뾰루지가 많이 돋기도 했습니다. 저는 줄곧 사존의 법을 외웠습니다. "신이 세상에서 법을 실증하고 있음이로다"(홍음 2-두려울 것 뭐냐). 계속 외우다 보니 덥지도 않았고, 다리도 불편하지 않아 계속 길을

다섯 번 넘어진 80대 할머니, 시련과 갈등 속에서 수련을 견지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영련(英蓮)

[명혜망] 저는 올해 83세이며 대법을 수련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아래에 최근 수련 체득을 사부님께 보고드립니다.

1. 정념으로 시련을 대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올해 3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외출해 진상을 알렸습니다. 정류장에서 다른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며 진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차에 오른 후 카드를 찍으면서 방금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할머니 옆에 앉아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몸을 돌려 사람을 찾는 순간, 아직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기사가 차를 급출발시켰습니다. 관성 때문에 저는 튕겨 나가듯 차 뒤쪽으로 쏠렸고 온몸이 하늘을 향한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꼿꼿하게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등 뒤로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고, 어찌나 아픈지 숨조차 쉴 수 없었으며 등이 부러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곧 세 사람이 다가와 저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모두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끌어당기지 않으셔도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연공인이니 괜찮아. 사부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야.' 몹시 애를 쓰며 천천히 일어났고 사람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기사는 한마디 말도 없었

시는데 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생각하려던 찰나, 저는 곧바로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미 밖을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것은 질투심,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과시심이다.' 제가 법 속에서 자신을 바로잡자 그것들은 자연스레 제 공간장에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자신이 진정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저 대법이 좋다고만 느끼고 수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고난과 고비를 만났을 때 쉽게 우회하거나 고비를 넘기는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은 마치 한 무리의 패거리 같아서 각각의 마음은 고립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착심이 드러났을 때 계속해서 아래로 파고들며 찾다 보면 그 뒤에 사람의 마음이 줄줄이 이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공간장에는 아직도 안일심, 듣기 좋은 말을 즐기는 마음, 남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사존과 대법의 기준과 요구에는 여전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법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안으로 찾을 수만 있다면 정념이 충분해지고 대법에 동화돼 집착과 업력이 곧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존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갔습니다. 사존의 가지(加持) 덕분에 아무리 덥고 땀을 많이 흘려도 그다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존께서 '북미순회설법'을 발표하시자, 저희는 그것을 입수한 뒤 즉시 수련생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한 농촌 수련생이 사는 곳은 큰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저와 Y 수련생은 그의 집에 도착해 사존의 설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몹시 감격하며 수련생들과 만날 수 없어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았는데, 이제 사존의 설법도 볼 수 있고 명혜망 글도 볼 수 있게 돼 마침내 다시 집을 찾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잠시 이후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희는 서둘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을 밖 길로 나선 이후, 자전거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타이어 바깥쪽에 진흙이 잔뜩 묻어 틈새를 메우는 바람에 타이어가 구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막대기를 구해 진흙을 떼어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때 행인 한 명이 지나가며 "여기는 찰흙 땅이라 비가 오면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 자전거를 메고 가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약한 여자 둘이, 이 시골 진흙길에서 비를 맞으며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자전거를 메고 가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존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고 계시며 하늘의 신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괜찮을 것이며, 우리는 대법제자이므로 분명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법을 외웠습니다. 큰길까지는 5~6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저는 발밑을 제대로 보지 못해 순식간에 사람과

자전거가 한꺼번에 길옆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앉아 살펴보니 길에 가로놓인 도랑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땅에서 일어나 뒤에 있는 수련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련생은 자전거를 메고 “저도 당신을 챙길 겨를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전거를 메고 “저는 지금도 당신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을 외우며 걸었고 마침내 큰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각종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 어떤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존께서 새 설법이나 신경문을 발표하실 때마다, 저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수련생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접속을 담당하던 기술 수련생이 출국하여, 다른 지역의 기술 수련생을 찾아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저는 곧 인터넷에 접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약간 두려움이 있어 먼저 정념을 발하고 사존의 법을 외우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기다리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의 장애를 돌파해 더 많은 컴퓨터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데 필요하며, 그래야 제 능력을 더욱 충분히 발휘해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 편집, 그림 제작은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사기 쉽지만 우리가 쓰는 암호화 시스템을 설치할 줄 몰랐기에, 컴퓨터가 있어도 쓸 줄 몰라 기술 수련생을 찾아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을 다룰 줄 아는 수련생이 더욱 적었기에, 저는 서약을 더욱 잘 실천하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 설치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 질투심과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을 없애다

우리집 큰동서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동서가 병상에 있을 때 제게 하소연을 하며 자기 아들이 치료비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 돈을 조카에게 주고 같이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큰동서는 “내 돈은 이미 조카한테 다 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조카가 못마땅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가해지기만 하면 머릿속이 들끓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어머니 돈도 다 네게 줬고 네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불효할 수 있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병이 나면 우리는 똑같이 치료해 드렸는데…’ 며칠 동안 들끓다가 저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머릿속에서 또 이 일을 두고 들끓기 시작하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들 사이의 인연이야.’ 그 이후로 이런 생각들은 제 머릿속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들은 모두 질투심,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반영된 것이었고 그 이면에는 과시심도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조카를 못마땅해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도리어 그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으니 참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 우리 팀에 젊은 수련생 한 명이 왔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비교적 덥다 보니 그 젊은 수련생은 물과 소형 선풍기를 챙겨왔습니다. 한창 법공부를 하던 중에 그 젊은 수련생이 물을 마시고 선풍기를 쐬려 하자 이것이 확실히 제 마음을 흔들었고 저는 속으로 ‘사존께서는 설법을 두세 시간 하셔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

일 중 하나입니다. 처음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문밖을 나서려고 할 때마다 눈앞을 가로막는 무형의 무언가가 있음을 뚜렷하게 느꼈고 문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몹시 힘겨웠으며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매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끝까지 버텼고 발을 밖으로 내딛기 어려워도 그냥 내디뎠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해 제거할 줄 몰랐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튼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것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당시 정념을 발할 줄 알았다면 이런 부패된 물질은 아주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2020년 무렵, 저와 남편은 농촌 고향에 돌아가 선거에 참여하며 몇몇 마을 사람에게 진상을 조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마을 입구를 나서자마자 마주 오던 이른바 '조직폭력 소탕' 차량 한 대가 곧장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제 공간장은 순식간에 두려운 물질로 가득 찼고 심장이 '쿵쿵쿵' 뛰었으며 걱정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차는 뭐 하는 차예요?" 남편은 "뭐 하러 왔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나를 찾으러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힌 뒤 속으로 '어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사존의 '홍음 2-두려울 것 뭐냐'를 한 번 또 한 번 외웠습니다.

점차 제 공간장이 맑아졌습니다. 공간장이 완전히 맑아졌을 때 저는 오히려 꽤 우습게 느껴졌고 동시에 머릿속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존의 자비로운 일깨움임을 압니다.

제가 결심을 한 이후, 사존께서는 제자를 위해 구체적인 안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련생이 한 명 있었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200여 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안개가 너무 짙어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후, 수련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마중 나왔는데 30여 리를 더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앉아 자욱한 안개를 보며 '이걸 어떻게 타고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습니다. 이때 안개등을 켠 큰 차 한 대가 지나갔고, 저희는 그 큰 차를 따라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고 수련생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배울 때, 저는 단계마다 아주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돌아온 이후 필기한 내용을 따라 시스템 설치를 연습했지만 도무지 되지 않아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적어둔 것과 조금만 다른 상황에 부딪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수련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자 다른 수련생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없었지만 바람이 유난히 셌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련생의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옆으로 불어 오토바이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언제라도 밭으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수련생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란 참 쉽지 않고, 교란도 이렇게 크며 구세력이 무척 심하게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면 사악의 인터넷 봉쇄는 해체될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보호에 감사드리고 수련생의 사심 없는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수련생을 번거롭게 했지만 수련생은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고 언제나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 수련생들은 제게 시스템 설치를 부탁했고 저에게 시스템 설치를 배우려는 수련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수박 겉핥기로 배운 정도라 누군가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 마음이 두려워졌고, 모르는 부분은 수시로 기술 수련생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마다 바이오스 진입 키 설정이 달랐고, 때로는 시스템 CD나 USB를 꽂아도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컴퓨터의 키들을 하나씩 다 눌러보았고, 때로는 어떤 키인지도 모르는 새에 USB를 인식하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에 부딪힐 때면 사존께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청했고, 많은 경우 갑자기 알게 돼 막혔던 곳이 뚫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시스템 설치 원리를 서서히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저는 종종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각종 신기술을 배우고 소모품을 샀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는 다른 지역 수련생을 찾아갈 때 기본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미리 사존께 향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사존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사존께 제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말씀드리며 제자를 가지해 주시기를 청했고, 제가 찾으려는 수련생이 꼭 집에서 저를 기다리도록 안배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한번은 전날 차를 예약해 아침 5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가 넘어 일어나 밖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몹시 춥다고 느껴, 문득 '사람들이 아직 단잠을 잘 때, 나는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물건을 사러 가야 하다니, 꼭 이런 날씨에

주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자를 앞으로 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안으로 찾고자 했기에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사존께서 이 돈 쓰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떼어내 주셨고, 저를 이끌어 수련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음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바로 우리 지역에 살구가 익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고향에서 살구를 조금 따다 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 팔았습니다. 한 손님이 차를 아주 빠르게 몰고 오다가 제가 길가에서 살구를 파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운 뒤 저를 향해 걸어오며 물었습니다. "살구 어떻게 팔아요?" 그와 저 사이에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기에 저는 "10위안에 2kg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4위안에 0.5kg"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마주쳤네요, 마침 살구 먹을 때인데 안 비싸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위안에 2kg 기준으로 그에게 팔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제 머릿속에 '너무 싸게 팔았나, 4위안에 0.5kg이라도 샀을 텐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건 이익심이다.' 사부님께서는 "공평하게 거래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된다"(전법륜)라고 설법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익심이 이미 저와 아주아주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느꼈고, 단번에 아주아주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듯했으며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서서히 사라졌음을 느꼈는데 저의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상쾌하고 유쾌했습니다.

3. 두려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인간관계 인연이 있습니다. 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자 저는 정을 담담하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2. 이익심

우리집 아이가 어렸을 때, 사 온 장난감은 며칠 동안만 새롭다가 결국 부서진 조각으로 변해 버려 다시 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고 이것은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또 장난감을 사 달라고 했는데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사 주라고 해서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와 봤자 제대로 놀지도 않고 결국 다 버릴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집스럽게 사 주라며 400위안을 꺼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남편에게 "400위안어치 다 사게요?"라고 묻자 남편은 "다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사 주기 싫을까? 응, 돈을 쓰는 게 두려운 거야.' 이어서 제 머릿속에 '사 줘라, 오늘 아이가 사고 싶은 건 뭐든 사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준 400위안을 들고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 두 개를 골랐고 20위안을 썼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끌고 마트를 나왔을 때, 갑자기 몸이 제비처럼 가벼워져 걸음을 걸을 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존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며 수련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당시 저는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수련해 없애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그때 스스로에게 한 번 물었을 뿐인데 마음이 단번에 아주 홀가분해지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

가야 할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쉴 줄도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정념은 즉시 알려 주었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약속한 일이라면 어떤 날씨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저의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고, 저는 즉시 사존께 향을 올리고 절을 하며 제가 하려는 일을 사존께 말씀드리고 제자를 가지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결연히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하늘은 뜻밖에도 햇살이 찬란하여 단번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사존의 자비로운 보호와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수련생이 기술자를 데려와 주어, 저는 부분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련생이 자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줄 아는 수련생도 데려와서, 그 수련생이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하는지 제게 알려 주었고, 저도 제가 아는 몇 가지 대량 생산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난 이후, 수련생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바로 그곳에서 기계 수리를 할 줄 아는 기술 수련생이었습니다. 수련생은 제게 기본적인 수리 지식을 몇 가지 알려 주었고, 일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존의 자비로운 안배를 생생하게 느꼈고, 어떤 기술 수련생이 필요하면 바로 그런 기술 수련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배웠고, 마지막 날에는 그곳의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여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후 수련생이 사이트 내 메일함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 주었고, 그 이후로는 한결 편해져 많은 일을 사이트 내 메일함으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6년 무렵부터 명혜망에 접속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주 정념을 발해 교란을 해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기본적으로 접속하려 하면 즉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수련생을 찾아 그들에게 인터넷 접속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 많은 일을 메일함으로 연락합니다. 메일함에서 시간을 약속한 이후, 수련생들은 약속을 지켜 기본적으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수련생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싶어 기회가 닿는 대로 수련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이 과정에서 자주 각종 심성 고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지만 기여하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여하려 하지만 비교적 늦게 배웠습니다.

제게는 어떤 분야를 배울 때 먼저 전체 과정을 익숙하게 하고, 간단한 것을 명확히 이해하며 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해한 뒤에, 정말 모르는 것만 수련생을 찾아 배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시간도 아끼고 수련생의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스스로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 보면, 사존께서 일깨워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는 수련생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술 수련생을 찾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A를 가르칠 때, 그녀는 비교적 늦게 배웠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공책에 적게 하고 필기한 대로 조작한 뒤, 모르는 부분을 고친 다음 다시 적게 했습니다. 제가 제 이해대로 그녀를 가르칠 때, 그녀는 때로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말해준 이후에도 그녀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저는 조금 조급해졌지만 조급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 저는 속으로 얼른 수련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시누이 집 근처에서 저는 대문에 진상 대련이 붙어 있는 집을 보았고, 마침내 수련생을 찾아 다시 정체(整體)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련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제 수련의 몇 가지 조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

아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얼굴에 뽀뽀를 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정이다, 사람은 정 속에 푹 빠져 있다.'

올해 여름 방학 때 아이는 축구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무척 더웠고, 아이가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슈팅 연습까지 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정이 또 나온 것입니다. 사존의 일깨움 속에서 제 머릿속에 곧바로 '이것도 업을 없애는 한 가지 방식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로써 저를 마음 아프게 하던 물질이 사라졌고 오히려 아이를 위해 기뻐하며 마음이 매우 든든해졌습니다.

남편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입에 발린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부탁하면 항상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공평하다고 느껴 남편이 안쓰러웠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원망했는데 사실 이것도 남편에 대한 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안쓰러워하는 것은 남편이 과로해서 병이 나 제 일을 돕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남편은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그에게는 그의

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한 대법제자가 제 상황을 안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의, 돌팔이 의사도 다 찾아보고 수술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시네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정성껏 외워 보세요. 틀림없이 기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내가 이미 이 지경인데 외워도 이렇고 안 외워도 이러니 차라리 진심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 외웠고 몸의 모든 세포가 다 함께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게 했으며, 글자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머릿속에 나타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달 뒤 제 몸은 좋아졌고 저는 우리집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 사존께서 수련생을 알게 안배해주셔서 저는 수련생들과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한동안 공부한 뒤 저도 법리를 조금 깨달았지만 이 이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조해 볼 뿐,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법공부 팀 수련생 메이이(梅姨)는 제가 정말 수련할 줄 모른다는 것을 보고 저를 위해 애태우며 자주 다양한 방식, 언어, 혹은 질문으로 저를 일깨워 줬습니다. 메이이는 저에게 정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저는 여전히 미혹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011년 6월, 저는 이곳을 떠나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 한 수련생이 저에게 “돌아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수련생을 찾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수련생들의 사심 없는 헌신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사존께서 제게 간곡히 당부하신 것임을 압니다. 사부님께서는 이 우둔한 제자를 위해 정말 마음을 다 쓰셨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말투를 통제하지 못하고 ‘왜 똑같이 대법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배우면 바로 알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가르쳐 주어도 모를까?’라고 생각하며 느리게 배우는 수련생을 약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안 돼, 수련생이 느리게 배운다고 못마땅해하면 안 돼. 나 자신도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조급한 마음, 짜증 내는 마음, 쟁투심 등 사람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급해하는 이유는 사심이 남아 그녀가 제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은 제가 아니며, 저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수련생은 모두를 위해 기여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니, 저는 반드시 그녀를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하며,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녀가 할 줄 알 때까지 해야 합니다.

A가 때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원망조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 저는 더욱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보수로 가르쳐 주는 거라 감사의 인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일 짜증 나는 건 내가 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르쳐 주고, 때로는 잠자는 시간까지 당신이 차지하는데, 당신은 그깟 작은 문제 하나도 배우지 못하면서 뒤에서 오히려 날 원망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없나요?”

이후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안으로 찾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수련생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저는 여러 번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녀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할 뿐,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설명

서가 있어도 보지 않고 제게 물어보길 기다렸으며, 세척액 설명서조차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보고 사용법을 알려주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병에 적힌 설명서를 들고 읽어주니 그녀는 그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A에게 "왜 먼저 생각해보지 않나요?"라고 묻자, 그녀는 "난 그냥 가르쳐 주기만 기다려요, 볼 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녀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았구나. 조금씩 배우게 하자. 그녀의 수용 능력에 맞춰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그녀가 즉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면 잠시 멈췄다가 익힌 뒤에 다음을 가르치자. 나는 내 서약을 실천해야 하고 사존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일들을 잘 완수해야 한다.'

저는 안으로 찾은 이후 억울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번거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심, 보답을 바라는 마음,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마음 등을 제거했고 모든 더러운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A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 태도와 말투가 틀렸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A는 이미 인터넷 접속, 인쇄, 기본 편집, 컴퓨터 시스템 설치, 사이트 내 메일함 사용과 기본적인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 줄 모르는 기계 수리 문제에 부딪히면 천지행(天地行)에 글을 올려 질문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 애를 태웠습니다. 30년 후, 저는 행복하게 파룬따파의 불광 속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한 일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정법이 막바지에 접어든 이 매우 제한적인 시간 동안, 저는 분발하여 앞서가는 수련생들을 따라잡으려 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수련의 조각들

글/ 중국 허베이 대법제자 귀항(歸航)

[명혜망]

존경하는 사존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에 '전법륜(轉法輪)'을 한 번 읽어보았지만, 깨달음이 부족해 깊이 법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저 겉으로만 대법이 좋으며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존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랐을 뿐, 대법이 널리 전해진 진정한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비로우신 사존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도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제 몸은 줄곧 아주 좋지 않아 명의, 돌팔이 의사, 크고 작은 한방과 양방 병원을 전부 돌아다녔고 결국 수술까지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는 어머

명절에는 5~6마리, 많게는 7마리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복이 대법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상 지폐를 가져다준 적이 있습니다. 가게 안이 너무 붐벼 저는 옆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고, 사장은 고기를 자르고, 사장 부인은 돈을 받으며, 고객들에게 연이어 잔돈을 거슬러 주다 보니, 잔돈 두 뭉치가 순식간에 고객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쁜 일이 끝나자 사장 부인은 서랍에 얼마 남지 않은 잔돈을 가리키며 기뻐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 돈 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거예요.”

제가 그들 가게에 고기를 사러 가면 사장님은 항상 제게 할인을 해주고, 사장 부인은 제게 돼지 피를 주며, 가끔 갈비를 싼 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해서 집에서 가져온 특산물 땅콩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법제자와 상인들이 진상 지폐를 교환하는 것은 그들이 물건을 팔기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장님들은 모두 속속 저에게 보답했고, 물건을 살 때 항상 할인가로 주었는데, 겉으로는 저에게 보답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생이 대법에 감사하고 사부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대법제자로서 진상 지폐를 교환하는 것을 거래로 삼아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소중한 중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저도 집에서 직접 키운 각종 채소를 사장님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맺음말

30년 전, 저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 생기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

저희는 평소 중요한 일이 없으면 모두 먼저 법공부를 했고, 저는 몇몇 법 암기 팀에 참가하여 시간 날 때면 법을 외우고 법공부를 하며 안으로 찾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우리 지역의 기술 수련생 한 명에게 의지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기술이 제일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에게 상황이 생겨 기계를 수리할 수 없게 되자, 저희는 다른 지역 수련생을 모셔와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지역 기술 수련생은 스스로 구운 떡과 짠지를 잔뜩 가져와 저희가 신경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기술을 배우며 겪는 모르는 문제들을 아주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련생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도 그는 자아를 내려놓고 아주 잘 협조했습니다. 수련생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방법대로 수련생에게 왜 그런지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기술 수련생의 행동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뭇 생명을 위하는 기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과 격차를 보았는데, 저는 때로 바빠지면 불평하려 했고 일이 많아지면 말하는 말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 마음이고 모두 사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는 한 걸음 더 깨달았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제가 만난 각종 상태는 사부님께서 제 사람 마음을 닦아 없애도록 이용하신 것이고, 저의 용량을 끊임없이 넓혀 사상 경지를 향상하도록 하신 것이며, 제가 서둘러 향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매번의 기회를 잘 파악하여, 매 순간 맑고 이성적으로 일사일념(一思一念)과 일언일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부님의 매번

자비로운 안배를 저버리지 않고, 진지하게 법을 중시하며 전체를 고려하여 매번 크고 작은 고비를 잘 넘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법 배우기

저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비교적 좋아 허영심, 체면 차리는 마음이 있었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남의 지적을 듣지 않으려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수련 전 가족들은 제게 "너는 푹 삶은 오리처럼 입만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 부딪히면 제 잘못이든 아니든, 저는 반드시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이랬고 저랬다며 각종 이유를 찾아 밖으로 책임을 미루려 했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후 이 방면에서 저는 줄곧 그것을 제거해 왔습니다.

처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족들이 모두 수련했기에 저를 아주 잘 대해주었고 저를 지적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그저 솔직하게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일이 제 잘못인데 어찌 늘 가족들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는 제가 틀린 것은 아닌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가족들은 즉시 저를 용서해 주었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격려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성된 것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일에 부딪히면 때로 형성된 관념이 주도했습니다. 제가 막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수련생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하면 돼요. 설명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존의 설법을 외웠습니다. "당신들은

고, 건네받으면서 늘 싱글벙글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와 가족도 복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은 예전에 집에 있던 허름한 작은 슈퍼마켓을 팔고 큰 집을 샀으며, 우리 마을에서 손꼽히는 꽤 큰 규모의 대형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그의 집은 곡물과 기름뿐만 아니라 식품과 생필품도 팔고, 가금류와 소, 양 사료(차로 양식농가 문 앞까지 배달해 줌)도 팔아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장날마다 그의 슈퍼마켓에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그와 아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친척 4~5명을 고용해 물건 파는 것을 돕게 했습니다. 매년 설이 되면 그는 종류가 다양한 폭죽도 팔았는데, 집에 자리가 부족해 집을 하나 더 빌렸습니다.

어느 정육점 사장님은 제가 처음 진상 자료를 주었을 때 감히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상을 알려주어 그가 알아듣고 난 후에는, 어떤 자료를 주든 다 받았습니다. 제가 사부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쓰신 몇 편의 설법을 잇달아 사장 부인에게 주었는데, 그녀는 늘 기쁘게 간직했습니다. 사장 부인은 성품이 아주 좋아서, 제가 그들의 가게에 갈 때마다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고 멀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명혜망 진상 달력을 매년 그녀는 가게 사무용 책상 위에 올려놓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가족도 진상을 깨닫고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요 몇 년 동안 제가 자주 그들에게 진상 지폐 잔돈을 가져다주어 고기를 팔기 편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의 장사는 유난히 번창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들 집 고기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많이 팔렸는데, 장날에는 돼지 3~4마리를 팔고,

생생세세를 모두 사부님께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명혜망에 투고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해 제 원신이 몸을 떠나 다른 공간에 가서, 그 중생들이 자신들의 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신성한 광경을 본 후에야 비로소 글을 써서 투고하기 시작한 것이니, 사부님께서 저를 이끌어 명혜망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수련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을 때는 글을 쓸 때 머리를 쥐어짜고 심혈을 기울여야만 발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후 제 문장력은 해가 갈수록 매끄러워졌고, 구상을 마치고 나면 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써졌습니다. 분명히 사부님께서 제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신의 붓을 하사하셨기에, 제가 비로소 대법이라는 이 정토에서 밭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부님이 안 계신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원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명혜 편집부 수련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듬어 주신 글은 금빛이 반짝이며 저와 독자들의 마음을 비춰주었습니다.

3. 중생이 구원받으니 즐겁다

대면해 진상을 알린 이래, 저는 외출할 때마다 진상 자료를 가지고 나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인연 있는 사람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물건을 팔러 오는 상인들에게도 저는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의 한 청년이 자주 차를 몰고 마을에 와서 곡물과 기름을 팔았습니다. 20년 전 그는 이미 진상을 깨닫고 소선대에서 탈퇴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진상 자료를 주면 그는 다 받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누가 말해도 반드시 괜찮은 정도까지 해내야 한다.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비판과 지적에 직면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제고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시 법회 설법)

한번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주 조급해하며 뒤에 걷고 있는 수련생에게 "좀 빨리 올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련생은 아주 평온하게 "말투를 좀 바꿔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내가 어째서 법을 외울 줄만 알고 실제 수련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웃으며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존께서 수련생의 입을 빌려 제게 '말투를 바꾸라'고 일깨워 주신 것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후 마음을 무척 심하게 자극하는 일에 부딪혔을 때, 저는 '홍음 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몇 번이고 외웠습니다.

제가 왜 스스로 틀렸는지 안 것은 바로 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며, 억울한 지적을 마주하여 저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저의 제고를 도와준 수련생에게 감사해야 하며 이런 기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도 습관이 돼, 무슨 일에 부딪히면 제 잘못이든 아니든 우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곧바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 지폐를 유통할 때 때로 돈 계산이 안 맞았는데, 저는 틀림없이 제가 잘못 셌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세어보면 맞았고, 이런 상황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의존하는 마음도 없앴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든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사존께

제자를 도와주시기를 청했고, 수도꼭지를 갈거나 방충망 문을 다는 등 생활 속의 많은 일을 천천히 배웠으며 점차 의존심을 버렸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저는 스스로 향후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을 더욱 순수하게 변화시켜야만 비로소 더 많은 중생을 구하고 제가 세상에 올 때 맺은 서약을 실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현 단계에서 인식한 것이며,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사존께서 나를 이끌어 신성한 귀로에 오르게 하시다

글/ 중국 동북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기쁘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얻었고, 생명이 위독할 때 새 삶을 얻었습니다. 위대하신 사부님께서는 업력이 온몸에 가득한 저를 속세의 고해에서 구해주셨고, 저를 이끌어 파룬따파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 30년의 수련 과정에서, 매 발걸음은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떠날 수 없었고, 사부님의 크고 심오한 법리(法理)는 제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걸어오며 쓴맛도, 매운맛도 있었고, 즐거움도, 행복도 있었습니다. 이번

작년에 명혜망에 '중복 투고'에 관한 글이 실렸는데, 저는 그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제야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중복 투고'는 남의 판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며, 수련의 층차에서 말하면 수련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추구하는 마음이자 명예에 대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원고를 완성할 때마다 추구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면 즉시 그것을 붙잡고 정면으로 경고했습니다. '나는 널 원하지 않아. 나는 대법 수련자이고, 나는 우주 대법을 원하며, 나는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의 정각(正覺)'(정진요지-불성무루)'으로 성취해야 해.' 저는 반드시 대법 웹사이트 수련생들의 판권을 존중해야 하고, 수련생들을 위해 생각해야 하며, 구우주의 속성인 '사(私)'를 반드시 닦아 없애야 합니다. 수련인으로서 성취하는 것은 신우주의 생명이고, '무아(無我)'하고 타인을 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우주의 기준입니다. 저의 정념이 마침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 원고가 완성되면 어느 웹사이트에 보낼지 결정한 후 그 웹사이트에만 딱 한 번 보냈습니다.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보았습니다. 발표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제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도 자신의 한 가지 집착을 찾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20여 년 동안 펜으로 법을 실증하면서 많은 글을 썼고, 제게 문장력이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명백하게 하늘의 공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 문학을 열애했던 것은 사부님께서 진작 안배하신 것이 아닙니까? 대법제자의

중국법회를 맞이해 저의 수련 과정 중 일부 깨달음을 써서, 사부님께 한 장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수련생들과 함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1. 진상 자료를 만드는 과정 역시 마음을 닦는 과정

10여 년 동안, 제가 진상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또한 제 심성을 제고하는 10여 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모든 프린터는 모두 법을 위해 온 바른 생명들이었고, 모두 영성이 있어 저와 묵묵히 협력해 중생구도를 도왔습니다. 그것들은 저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저의 많은 사람 마음도 닦아 없애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 전 진상 자료를 만들 때, 프린터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저는 제가 어디를 잘하지 못했는지 안으로 찾지 않고, 책임을 전부 프린터에게 미루며 프린터가 좋지 않아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수련생을 찾아 기술 수련생을 데려와 수리하게 했습니다. 기술 수련생이 기계를 켜보니 프린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안 되었고, 다시 기술 수련생을 불러 수리하게 했을 때도 여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술 수련생은 저에게 안으로 찾으라고 하면서 법공부를 많이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써서 법공부를 할 줄 알게 되었고, 대법에 대조하며 자신을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저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찾았고, 제게 존재하는 문제를 찾은 후에는 기계가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심성을 잘 지키지 못해 프린터가 종이를 끌고 들어가거나 종이가 걸려 페이지를 보충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생길 때가 많았습

이미 기쁨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이미 환희심이 생겼다는 것, 즉 집착심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제게 글을 대필해 달라고 부탁했고, 심지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고,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 결과 성공작은 몇 편 되지 않았고, 많은 원고가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법회는 명혜망에 투고했다기보다는 명혜망 수련생들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안겨주어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제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존재하는지 깊이 파헤쳤습니다. 분발하여 원고를 쓴 것은 많이 발표되기를 바라고 수련생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이는 명예를 추구하는 심각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그 근원을 따져보면, 제가 명예에 집착했기에 그렇게 많은 수련생이 저를 에워싸고 글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나서야 사부님의 “상유심생(相由心生)”(각지 설법 10-에포크타임스 회의 설법)이라는 이 법리의 깊은 함의를 깨달았습니다.

추구하는 마음과 하늘의 공을 탐내는 마음을 버리다

1년 전, 저는 명혜망에도 투고하고 다른 대법제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투고하는 등 여러 곳에 중복 투고를 했으며, 어떤 글은 두 웹사이트에 각각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투고했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제 글이 발표되기를 추구하는 아주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발표되지 않으면 저 웹사이트에서는 발표될지도 몰라. 어쨌든 내 심혈을 헛되이 바치지는 않았으니, 소원대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결국 그 근본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못한 이기심이었습니다.

니다. 이때 저는 우선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어떤 마음이 사악에게 틈을 타게 했는지 찾았습니다. 찾지 않으면 모르지만, 찾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사고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사람의 이치였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잘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으며, 7~8년 묵은 일들에 따라 원망심이 올라와 무의식중에 속으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호시탐탐 노리는 구세력은 다른 공간에서 너무나도 똑똑히 보고 있는데, 그들이 틈을 탈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았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며 대법제자의 모습이 없었기에 구세력은 이를 깔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구세력은 대법제자가 수련 성취할까 봐 두려워하며 대법제자의 허점을 트집 잡아 교란하고, 소란을 피우며, 아래로 끌어내리고, 마지막에는 끌고 가서 결국 당신을 훼멸하려는 죄악적인 목적에 도달하려 합니다.

저는 구세력의 안배와 박해를 간파하고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문제가 적게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심성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이웃집 여자는 매일 오가며 만납니다. 그녀는 저와 동갑으로 수십 년간 그녀를 잘 아는데,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안면을 쉽게 바꾸며, 재물을 목숨처럼 아끼고, 어딜 가든 물건을 보면 가져가거나 달라고 합니다.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험한 말을 쏟아냈고, 누구를 언급하든 다 자신에게 미안한 일만 했다고 하며, 그녀의 입에서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접촉을 줄이고 최대한 멀리했습니다.

저는 몇몇 정진하는 수련생들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명혜망에 투고했습니다.

명예욕을 닦아 없애다

2008년, 조율하는 수련생과 책임지는 수련생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도 한 송이 '작은 꽃'을 피웠습니다(가정 자료점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기술 수련생은 또 제가 타자, 편집, 원고 전송 등 과학 기술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컴퓨터에서 직접 글을 타자하여 명혜망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파룬따파의 날과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통지가 나온 후, 수련생 A가 저를 찾아와 투고할 글을 써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글이 인터넷에 발표된 후, 수련생들은 큰 고무를 받았고, 그래서 모두들 저를 찾아와 법회 원고를 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으며, 그중 어떤 수련생은 저를 '신의 붓'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뻐했고, 이에 곁에 있던 두 명의 협조인 수련생이 제게 절대 '명예욕'을 일으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 자신도 '명예' 면에서 주의 깊게 수련했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며 수련인이 마땅히 버려야 할 집착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쓰면서 수련생들의 칭찬 속에서 명예욕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고, 무의식중에 우쭐해졌습니다. 수련생들과 만난 후, 누군가 제게 "'명혜주간'에 실린 그 글 당신이 쓴 거죠? 딱 보니 당신이 쓴 줄 알겠던데요, 정말 잘 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속의 격동을 최대한 억누르고 기쁨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최근 몇 년간 이 이웃집 여자의 남편은 병을 앓아 자주 병원에 입원했고 일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 집의 잡일을 가끔 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참 가엾다고 생각해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할 줄 알아서, 그녀도 자주 우리집 차를 타고 장에 가곤 했는데, 저는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반감이 들었습니다.

올해 이웃집 여자는 우리집에 자주 왔고, 물건만 보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비록 불만이 있었지만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가 좀 넘어, 이웃집 여자가 제 남편을 찾아와 함께 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르네요, 밥 먹고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다녀와야 마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박한 남편은 즉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밥 먹고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와서 먹겠다고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치에 맞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이 불청객에 대해 속으로는 여전히 아주 불만스러웠고, 아침을 지으면서 소심한 남편이 교양 없는 여자 말에 맹종하는 것을 원망했고, 이웃집 여자라는 그 악바리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여성 대법제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괴롭히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녀 집에서 잔치를 할 때, A 수련생의 가족이 축의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녀는 A를 볼 때마다 쉴 새 없이 욕을 했고, 결국 A가 축의금을 보충하고 나서야 그녀는 그만두었습니다. B 수련생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B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남의 집에서 B와 싸워 수련생을 아주 화나게 했습니다. C 수련생 주머니에 있던 돈이 실수로 땅에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일부러 우리집에 와서 깊은 감회를 담아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이네요.”

2. 글쓰기 속에서 승화하다

수련하기 전, 저는 문학을 좋아하여 아마추어 문학 창작을 했었는데, 이는 수련 후 대법 안에서 글을 쓰는 데 일정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002년 봄, 저는 편지로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를 당해 중공 경찰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앞에서, 저는 떠돌며 일정한 거처가 없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연말에 지역의 한 수련생이 타지에서 저를 데려와 지역의 전체 정법(正法) 속에 융화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는 깊은 밤에 제가 단잠을 자던 중 요란한 음악 소리에 놀라 깼는데, 저의 온몸이 허공으로 떠올라 한 천국 세계로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산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망망한 인파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하고 장엄한 연화좌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주위 사람들을 향해 회전하고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생들이 그들의 주나 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화좌 주변의 중생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텅 빈 연화좌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끝없는 간절함과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했고, 그 표정은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곁에 있던 A 수련생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것을 써서 명혜망에 보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글이 발표된 후, 지역 수련생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떨어지자, 그녀는 뒤에서 그것을 줍고는 즉시 숨겼고, 이런 짓을 하고도 몇 번이나 C의 집에 가서 C의 남편에게 차를 몰고 자신을 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그녀가 대법제자의 선함을 역이용한다고, 너무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당신들이 그녀의 버릇을 나쁘게 들인 겁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지은 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내 생활 속에 뛰어든 것이 우연일까? 당연히 아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신이 어찌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저는 사람에서 신으로 나아가는 대법제자가 아닙니까? 신은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낸 것은 사람 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정신을 차린 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꽉 막혀 있던 화가 순식간에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한 시간 후,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왔고, 커다란 수박도 하나 사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화기애애하게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저의 마성이 또 올라와 남편에게 이웃집 여자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입을 수련하지 못하고 또 그녀에 대해 듣기 싫은 말을 몇 마디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진상 자료를 만들 때 실수로 프린터와 컴퓨터의 연결 선을 두 번 건드렸는데, 두 번 다 합선 상황이 발생해 종이 두 장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쇄 페이지 수가 자동으로 늘어나 '명혜주보' 8부가 더 인쇄되었고,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8부를 더 보충해야 했습니다(우리가 포장하는 자료는 2합1로 인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이웃집 여자에 대해 가졌던 원망심, 쟁투심, 그리고 그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억눌러 두었습니다.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정말 파리를 먹은 것처럼 혐오스러웠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심리 상태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녀가 왜 제 생활 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 마성을 드러내게 하여, 더 나아가 집착을 닦아 없애도록 하신 신묘한 안배였고, 저를 사람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 제 심성을 높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수련생들이 그녀의 버릇을 나쁘게 들였다고 속으로 원망했는데, 대법제자가 높은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미망 속에 있어 천리를 모르는데, 생활 속에서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 여자는 일반인이고 마을에서 평판도 좋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녀와 가까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이미 70세이고 남편도 병이 있으며 아들도 곁에 없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녀와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선량하여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 저는 저에게 좋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웃집 여자를 연민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였습니다. 저는 반평생 대법을 수련했는데 무엇을 수련했습니까? 수련한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자비가 아니었습니까?

인식이 마침내 제고되자 마음이 그토록 홀가분해졌고, 정말 하늘이 맑고 몸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후의 날들에서 이웃집 여자가 어려움에 부딪혀 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때,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